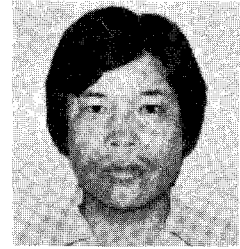


88	낙	농	육	우	의		
						전	망



김 용 진
축협 축산 관측과

I 머리말

1984년 이후 3여년 동안 계속된 소값불황, 그리고 87년 여름철의 우유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었으며, 이에따라 소를 직접 기르는 양축가들이 받았던 물적 손실과 정신적 압박이 매우 컸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으며 또한 양축가가 아닌 축산관련 공직자들 또한 무던히도 곤욕스러웠던 기간이었다.

아직도 소값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87년 들어서 부터 1,000~1,050천원 수준으로 어느정도 회복되다보니 늦게마나 그런대로 큰 시름은 덜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또다시 걱정되는 일이 있는것은 관광호텔용의 쇠고기 수입설이 모 일간지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으며 86년 하반기 이후 소두수 특히 암소두수가 자꾸만 감소하고 있어 이제 겨우 사육 의욕이 회생되었던 것이 다시 좌절 되고 이와함께 사육기반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하는 성급한 두려운 생각도 든다.

한편 쇠고기 수요와 대체성이 가장 강한 돼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양축가는 이러한 걱정을 다소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요량을

충분히 생산 공급 할수 있는 마리수를 확보 하면서, 계절적 혹은 월별로는 홍수 출하나 지연 출하 또는 과일 입식을 삼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할때 가격은 안정될 것이며 이럴때에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은 심하지 않을것으로 본다.

84년 이후 수입이 금지될 수 있었던 것도 소값이 불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혹자는 수입금지를 위하여 소값이 계속 불황이어야 하느냐로 화를 내면서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소값이 터무니 없이 오르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피 하다는 명분을 처음부터 없애버리자는 의미이다.

소값은 안정적으로 회복 되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홍수 출하나 지연 출하 또는 과일 입식을 삼가 하여야 한다.

II 사육 동향과 전망

1. 사육동향

최근 87년 9월의 소사육 마리수 통계를 보면 소 총 마리수가 한육우만은 2,135천두이고 젓소까지 합해서 보면 2,600천두가 못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중에서 송아지를 당장 낳을 수 있는 2세 이상의 암소마리수는 젓소까지 합

소 사육 동향

(천두)

		'83	'84	'85	'86		'87		
					6	12	3	6	9
총 두 수	한 육 우	1,940	2,318	2,553	2,640	2,370	2,168	2,149	2,135
	젖 소	275	334	390	422	437	446	455	464
	계	2,215	2,652	2,943	3,062	2,807	2,614	2,604	2,599
큰 암 소	한 육 우	870	999	1,047	1,028	904	854	835	823
	젖 소	160	195	231	245	249	255	262	267
	계	1,030	1,194	1,278	1,273	1,153	1,109	1,097	1,090

소 사육기반 관련지표

(%)

지	표	'81	'83	'85	'86	'87. 9
총	두 수 중 큰 암 소 비 중	44	47	43	41	42
(한	육 우)	(42)	(45)	(43)	(41)	(38)
도	축 두 수 중 암 소 비 중	25	14	35	52	47
큰	암 소 번 식 율	51	78	81	79	-
년	간 소 모 두 수 대 송 아 지 생 산 두 수 율	62	70	122	96	-

해도 1,090천두 수준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직도 큰 암소가 1,000천두를 상회하여 84년도 전반기의 두수와 비슷하여 사육기반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좀더 깊이 생각하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할수있다.

84년 경에는 소사육 의욕이 한창 절정에 달하여 너도 나도 암소를 확보하고 송아지를 생산 하므로서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비하여 지금은 암소사육 형태가 번식위주 보다는 비육위주로 사육되고 있다는점과 86년이후 두수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암소 번식율을 80%로 높여 잡아도 당년 도축 소모두수에 절대 못미치는 마리수의 송아지만을 생산하게 될뿐이어서 소비가 크게 격감하지 않는한 암소나 어린소가 그만큼 도축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 사육기반에 관련되는 몇가지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첫째 총 사육두수중 암소비중이 83년

에 47%에서 지난해 9월에는 42%로 감소했고 특히 한육우만 보면그것이 38%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축 두수중 암소비중을 보면 아직도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반면 번식율은 80%이하로 낮아지고 있으며 당년 소모두수에 대한 송아지 생산 두수의 비율은 이미 작년부터 100%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암소 사육두수의 변화를 보면 1세미만의 암소가 1년후인 1~2세의 암소로 넘어가는 추세가 한육우나 젖소가 다같이 85년 까지는 100%이상인 되었으나 86년도에는 감소추세를 보여 한육우는 47%수준 젖소는 86%수준으로 같은 수로 넘어오게 될때의 지표인 100%의 수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세이상 큰암소도 젖소를 포함해서 86년에는 5.8%가 87년에는 12.8%가 각각 감소하여 매년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2. 사육 전망

이상에서 비교분석해본 몇가지 요인을 근거로 향후 소 사육 두수를 추정해 보면 연초에는 젖소마리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육우 마리수가 2,000천두에 육박함으로써 소전체 마리수는 2,500천두 수준에 이를것으로 전망 되며,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많은 6월경에도 이수준을 상회하지 못할것으로 보아 소전체 마리수의 감소세는 88년에도 계속될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감소폭을 줄이는것이 당면한 문제라고 하겠다.

Ⅲ

소비동향과 전망

1. 쇠고기 소비 동향과 전망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쇠고기 소비량을 보면 정육기준으로 85년에는 120천kg을 소비했으나 소값이 불황이었던 86년에는 148%를 소비함으로써 1년 소비증가율이 무려 23%나 되었다.

그러나 87년에는 소값의 회복세와 대체육인 돼지고기의 하락으로 크게 증가 하지 못하고 약 150천kg내외 정도에 그칠것으로 추계된다.

한편 소비량은 이월량에 당년 소도축 두수를 합산한것에서 차년 이월량을 제외한것으로 표시되는데 소비량에 크게 좌우하는것은 국내 도축두수라고 할수 있겠다.

그리하여 전국 소 도축두수에 의한 국내 생산량을 비교하여보면 86년도의 수매 비축시기 보다는 감소 했지만 83년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쇠고기 생산및 소비변화

단 위		'83	'84	'85	'86	'87 (추정)
도 축두 수	천 두	317	458	746	1,086	994
도 체 중	지육kg/두	445	432	408	367	389
정육환산	천 톤	66	91	117	151	147
소 비 량	천 톤	115	107	120	148	150
인당소비량	kg	2.9	2.6	2.9	3.6	3.6

보여 994천두의 도축실적을 보였다고 추정되며 이것을 정육으로 환산할때 147천kg은 될것으로 추계된다.

그리고 이월량과 재고량을 감안한 국내 소비량 추정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150천kg내외에는 그치게 된다.

88년도의 도축두수를 전망하여 보면 큰암소 두수의 감소에따라 더욱 감소할것이라는 것이다.

도축두수가 감소하더라도 도체중이 증가하면 문제는 없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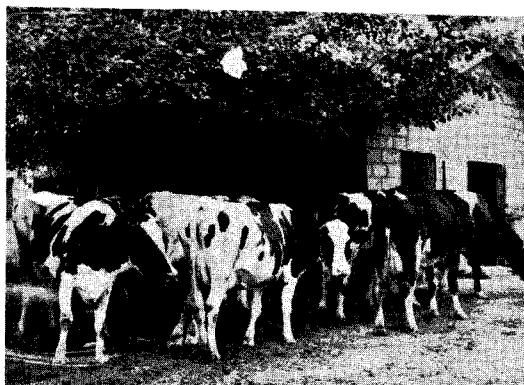
그런데 88년의 도축 두수는 872천두로 예상(큰암소 두수 1090천두×비율을 80%)되는데 이것은 87년 보다 12.3%가 감소된 물량이며, 87년보다 동일한 수준의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두당 도체중이 444kg으로, 87년 보다 14%(54kg)나 증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에 증체시킬수는 없을 뿐더러 만약 55kg을 증체 시키려면 2~3개월 동안은 출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가격은 급상승하여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투기업자들의 투기대상이 됨과

두당 도체중을 급격히 증가시키기는 어려우므로 87년 증가 추세대로 두당 22kg을 가산하여 88년 도체중을 411kg로 간주할 때 쇠고기 생산량은 136천M/T정도로 예상되어 증가하는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수 보다는 더 많이 도축하게 되어 절대 마리수가 감소

**88년도의 도축두수를 전망하여 보면
큰암소 두수의 감소에 따라 더욱 감소
할것이 도축두수가 감소하더라도
도체중이 증가하면 문제는 없을 것**



동시에 보유마리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다시 83년 최고 소값이후의 사정이 되풀이 될수밖에 없게 된다.

아롱든 두당*도체중을 급격히 증가시키기는 어려우므로 87년 증가 추세대로 두당 22kg을 가산하여 88년 도체중을 411kg로 간주할 때 쇠고기 생산량은 136천% 정도로 예상되어 증가하는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수 보다는 더 많이 도축하게 되어 절대 마리수가 감소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일반 경제성장율이 매년 7.5%의 고도성장과 인구 증가율이 매년 1.6%씩 증가되므로 쇠고기 수요는 매년 9~10% (성장율 7.5%×소득 탄성치 1.25)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88년도의 쇠고기 수요량은 165천% 내외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공급량은 수요량에 비하여 15%~18% 정도의 부족 현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2. 유우 소비 동향과 전망

우리나라의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우유의 소비량을 보면 83년도에 729천%에서 86년도의 1,162천%까지 연평균 16.8%씩 증가세를 보였다.

87년에는 여름철의 긴장마 그리고 노사분규 등 사회적 소요와 우유생산 할당제 예고(예고 후 철회)등으로 우유 소비 부진 및 사육불안이

있었으나 낙농업자들은 이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정부에서도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87년에는 86년에 비하여 16.1%의 소비증가율을 보여 1,348천%이 소비 될것으로 추정되며 분유재고량도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4천%정도로서 매우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88년도의 우유 수요전망을 보면 우유는 축산물중에서 소득 탄성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소득 10%가 증가하면 우유 소비는 27%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 수준별연평균 소비증가율을 보면 1인당 GNP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500달러 미만에서는 42%, 500~1,000달러 수준에서는 24%, 1,000달러 약간 넘어서면 15%의 증가율을 보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량은 체증증가 하지 않고 체감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이와같은 상황과 88년도의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88년의 수요량은 1,430천%(6%증가) 정도로 예상되며 우유 생산 측면에서는 젖소 두수가 6~7%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므로 수급의 균형에는 차질이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우유생산 및 소비변화

	단 위	'83	'84	'85	'86	'87 (추정)
생 산 량	천M/T	712	841	1,006	1,154	1,340
소 비 량	천M/T	729	834	991	1,162	1,348
1인당소비량	kg	18.2	20.5	23.3	27.8	32.0

N

소값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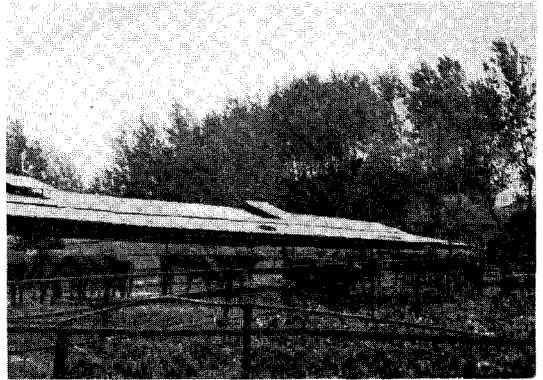
우유 가격은 85년 5월 1일 이후 kg당 322원(유지방율 3.4%기준이며 유지방율의 변동에 따라 가격도 변동)으로 고시된 가격이므로 동향과 전망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한우 가격을 살펴보면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84년 이후 3여년 동안 지속되던 하락세가 87년 2월을 고비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4~5월에는 일시적인 급등 현상까지 되다가 6월 이후 현재까지는 1,000~1,050천원 수준에서 안정적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안정적 보합세로 표현하는 것은 현재의 큰소수값과 14개월전의 수송아지값의 차이가 600~700 천원의 수준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차이를 보면 81~82년에는 1,000천원으로 최고수준, 85년에는 350천원으로 최저수준, 86년에는 550천원 87에는 600~700천원으로 호전되고 있다.

그러면 88년의 소값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소값은 사육두수가 절반을 좌우하고, 나



머지 절반은 쇠고기 수요가 좌우한다고 본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국내생산량이 136천M%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기에 이월량을 추가하여도 전체 공급량은 140천M% 내외로 예측되는 반면에 수요량은 165천M%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결국은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하여 15~18%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소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두지의 걱정되는 변수는 쇠고기 수입여부와 돼지값의 하락여부인데 요즈음의 쇠고기 수입가능설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해명을 발표하여 겨우 잠잠하여져 가는 양축가의 사육심리에 파문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소는 다른 가축에 비해 성장기간이 장기성인 데다가 번식력이 약하게 때문에 소값의 순환주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성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값의 하락세와 상승세는 장기간 지

소는 다른 가축에 비해 성장기간이 장기성인 데다가 번식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값의 순환주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성일 수 밖에 없다.

84년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3여년 동안 계속되고 87년말부터는 이미 상승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88년의 소값은 양돈 불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월별 소값 동향

(천원 / 두)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큰 수 소 (400kg)	'86	1,027	1,041	1,014	998	995	996	992	1,010	1,010	963	950	941
	'87	926	920	934	1,065	1,100	1,067	1,046	1,039	1,032	1,025	1,008	1,036
수 송 아 지	'86	370	388	376	370	374	384	380	384	389	374	366	355
	'87	367	394	416	475	495	505	501	485	478	484	480	503

앞으로는

1. **홍수출하 또는 지연출하 하지말고**
2.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한 경영관리**
3. **가축개량 및 자급사료 확보**
4.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송아지 구입말것**

속되게 되는데 84년 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3여년 동안 계속되고 87년말 부터는 이미 상승국면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88년의 소값은 양돈 불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소 사육농가에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장기성인 소를 사육하면서 일시적인 소값 등락에 동요되어 홍수출하 또는 지연출하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둘째는 소 사육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될 수도 없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한 경영관리를 해야만이 양축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이다.

셋째는 가축개량의욕을 높이고 자급사료를 확보하는 것등으로 사육비를 절감하여 쇠고기를 외국과 같이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넷째는 88년이후 소값이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해서 송아지를 83년도 처럼 터무니 없이 비싸게 구입하여 사육해서는 안되겠다. 소 사육비에서 송아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데 밀소(송아지)값이 비싸게 되면 동일한 큰 소값에서도 그 만큼 경영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84년이후 3년동안 겪었던 소값불황의 쓰라린 경험을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만이 앞으로 육우 및 낙농업이 튼튼한 반석위에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내용은 필자 개인의 소견이기 때문에 만약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그것은 필자의 책임을 밝혀 둔다.

■ 우유소비홍보표어 ■

내가 마신 우유한병 가족건강 나라건강